# 상대를 놓고 빈다면 자기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 21면에서 계속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큰스님** 제대로나 대답을 해 줬는지 모르겠네요.

**질문자1(남)** 아닙니다. 궁합이나 이런 것도 결국은 육도윤회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섯 번째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큰스님**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누구나가 다요.

**질문자1(남)** 알겠습니다. 저희로서는 과거와 미래를 알 수가 없는데 현실 생활 가운데 윤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큰스님** 아까 말해 놓고 또 딴말하시네요. 그거 증명할 수가 있죠, 허허허.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냥 전체를 알게 되죠. 우리가 보는 것도 만나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먹는 것도 사는 것도 모두 고정되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육도윤회에 끄달리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치심이 올바른 거죠. '그 윤회라는 것이 알고 본다면 모두가 공했으니까, 거기다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매이지 말아라. 매이지 않는 게 상책이다. 매이지 말고 벗어나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가를 들이든지 시집을 보내든지 상관없이 마음 턱 놓고, 그 사람 집과 양면 모두, 신랑 색시 모두 그 마음을 잘 봐서, 그냥 맞으면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맞는 겁니다.

또 현재 상황을 볼 때, 우리 한국이 땅이 좁아서 산이든지 땅이든지 어느 때에 묘지를 파가라고 할지도 모르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탑으로 하나만 딱 해 놓고 그냥 세세생생에, 삼대(三代)가 다 들어가고 사르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게 해 놓는다면, 아주 죽어도 걱정이 없고 살아도 걱정이 없죠. 그러니 아무 데나 내가 좋다 하는 자리면 그냥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법이 된다 이 소립니다. 그대로 법입니다.

참법은 그런 데에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진 주장자가 있음으로써 하늘을 꿰어서 굴릴 수 있다 하는 것은 어느 귀신 하나도 범접치 못한다 이 소립니다. 그저 부처든 중생이든 귀신이든 뭐든 닥치면 닥치는 대로 먹어 버리니까 말입니다. 불바퀴에다가 그저 닥치는 대로 넣으니까 타 버리더라고도 하죠. 그거와 같습니다.

아무리 넣어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아무리 꺼내도 꺼내도 줄지 않는 이 마음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사세요, 아주 당당하게! 걸망 지고 이 세상에 나와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어릿떠릿하고 그렇게 바람 부는 대로 쓸리면서 내 주장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그 차안의 세계에서 만날 그렇게 모습을 바꿔 가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까?

**질문자1(남)** 또 있습니다.

**큰스님** 네. 하하하. 오늘 재밌네요.

**질문자1(남)** 오늘 윤회 얘기가 나온 김에 아주, 의문이 나는 점을 뿌리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계속 윤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큰스님** 그런 것 같애요. 하하하.

**질문자1(남)** 윤회의 주체가 우리 몸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주인공이라면, 이 주인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불가에서는 아뢰야식이 윤회의 주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지금 질문하시는 분 그냥 그대로죠, 뭐. 그대로! 그대로 바로 우리가…, 뭐라고 물었죠?

**질문자1(남)** 불가에서는요, 아뢰야식이 윤회의 주체라고 하는데요, 그게 맞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라는 그 자체도 한마음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면 '한마음' 이라고 했겠습니까? 네? 돌아가지 않는다면, 움죽거리지 않는다면 왜 그것을 한마음이라고 해 놨겠습니까? 하나로 돌아가느니 한마음이니, 왜 그랬겠습니까? 일체가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를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건데 '주인공!' 하면 바로 고정됨이 없이…, 『반야심경』에도 '공했다, 공했다' 했지 않습니까? 찰나찰나 나투는 까닭에 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영원한 겁니다. 끝없이 이끌어 가는 영원! 자기가 그냥 영원한 겁니다. 하여튼 부처가 되든 중생이 되든, 차안에서 넘지 못하든 넘든 간에 영원한 겁니다.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하고 얽매여서 수없이 그렇게 끝없이 윤회에 말려서 허덕거리니까 그게 걱정이지, 그저 어느 모습으로 나왔든지 간에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세세생생에 그 차안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바뀌어 다니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그 안에서 벗어나라. 그런 거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마라. 그냥 그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했든 잘했든 그냥 긍정적으로 '잘한 것도 너고 못한 것도 너니까.' 하고 그냥 놓고 가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 입력으로 넣는다면 앞서의 입력이 다 없어짐으로써 새 입력을 넣는 대로 또 나오니까 우리가 살 만하죠. 살만한 겁니다, 진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서 그 열매가 그 나무에서 무르익는다면 아주 만가지 맛이 나면서 살맛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신다면 나를 만날 때, 길에서 만나든 어디서 만나든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이러이러합니다' 그러고선 그냥 똥줄이 빠지게 가세요, 그냥. '이러이러합니다' 이런다면 그 마음과 이 마음이 그냥 동시에 붙어서 불이 들어올 수 있으나, 이 줄을 가지고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하면 그냥 망가지고 말아 버려요, 오히려 그냥! 그런데 이거를 그냥 부여잡고는 집을 살려 달라느니 집이 송두리째 날아가느니 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켓이라고 그럴까, 뭐라고 그럴까? 그게 귀찮아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딱 끼워 놓곤 그냥 그냥 가시란 말입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죠. 원주에서 서울로 오려고 차를 타고 오다가 막 내리는데, 손이 갈라지고 문둥 환자처럼 더더기가 붙고 한 어떤 사람이 "이런 병이 들어서, 내쫓긴 거나 마찬가지로 됐습니다. 문둥 환자 사는 데로 가라고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냥 차를 막아서서 가질 못하게 해요. 그래서 얼른 가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차를 막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나도 내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찰나에 자꾸 바뀌니까. 그건 내가 한다 안 한다 이런 게 없어요. '아, 그렇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한마디만 해 달래요. "알았다." 하니까 그때서야 가요. '그거 참 이상하다. 알았다고 한마디 들으려고 저렇게…. 저 사람네들이 나의 뭘 보고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더군요. '저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알았다는 한마디를 들으려고 와서 그렇게 길을 막고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에이, 내 꼬락서니를 보고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을 텐데 그래도 저렇게 믿고 그 말을 듣고 가네.' 이러고선 그냥 돌아서서 왔어요.

며칠 서울에서 지내고 상원사엘 돌아갔다가 그 이듬해에 다시 또 서울을 오게 되었는데, 누가 두 팔을 벌리면서 날아오듯이 그냥 차로 달려들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누가 또 왜 이러나 싶어서 말이에요. 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짱하게 나아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낫게 해 준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자기를 자기가 낫게 한 거란 말입니다.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고개가 안 돌아가는데 절을 아주 그냥 공손하게 삼배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휴! 저렇게 젊은 남자가 나의 뭘 보고 삼배를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겠죠. 그렇죠, 사실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버스 타고 돌아가다가 그게 나았대요. 허허허.

그러니까 그게 내가 해 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본인들도 자기 마음을 자기가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지, 진짜로 하심하고, 진짜로 돌을 보고도 정성을 들이고, 저 형상 부처님을 보고도 막 살려 달라고 애를 쓰는 판인데, 어떻게 산 사람을 보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하하.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산 사람을 귀중하게 안다면 저 형상적인 부처님이 진짜 이 세상을 한 손으로 꿰들었다는 그 도리를 알게 됩니다. 또 하세요.

**질문자1(남)** 네,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뭐, 비슷한 질문이라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큰스님** 아니에요, 다 하세요. 다 하셔도 좋아요. 질문하고 토론하는 데에서 우리가 배울 점도 있고 그러니깐요.

**질문자1(남)** 거의 모든 종교가 윤회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교는 장생불로(長生不老)에 있다고 하고, 기독교와 천주교는 천당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아, 그것도 마음에 있는 거죠, 뭐. 도교가 뭐, 다른 겁니까? 도란 마음이죠. 이 마음이 벗어난다면 정말 삶의 보람을 찾고 영생을 할 수 있는 거고, 영생이 된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습을 해 가지고 나오려면 나오고 말려면 말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상황에 따라서 그 모습을 나타냈다가, 또 자기 모습을 없애려면 없애고, 또 모습을 나타냈다가 없애려면 없애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법이구요. 그러니까 자유자재권을 송두리째 얻는 거죠.

불교에서는 '자신을 발견하라. 너부터 알고 너부터 발견해야만이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죠. 그런데 기독교나 가톨릭교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보고 믿고, 상대를 보고 기도를 하니까 나를 발견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로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에서 본다면 '자기부터 알았으면 그 도리를 모두 알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불교도 상대를 놓고 기도하고 상대를 놓고 빈다면 자기를 뛰어넘을 수가 없죠. 자기를 발견할 수도 없구요.

그래서 이 법당에 들어오면 당신이 이 법당에 들어왔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당신이 법당에 왔기 때문에, 당신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있는 거지 당신이 법당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부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형상도 자기의 형상과 둘이 아니요, 마음도 둘이 아니요, 생명도 둘이 아니고 전체가 둘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주인공에 하나로 묶어서 삼배를 하든지, 또는 하나로 부처님한테 묶어 놓고 삼배를 하고 다시금 자기한테 하나로 끌어 묶어 놓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덕이 되고요. 또요?

**질문자1(남)** 네,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큰스님** 왜 그만하십니까? 하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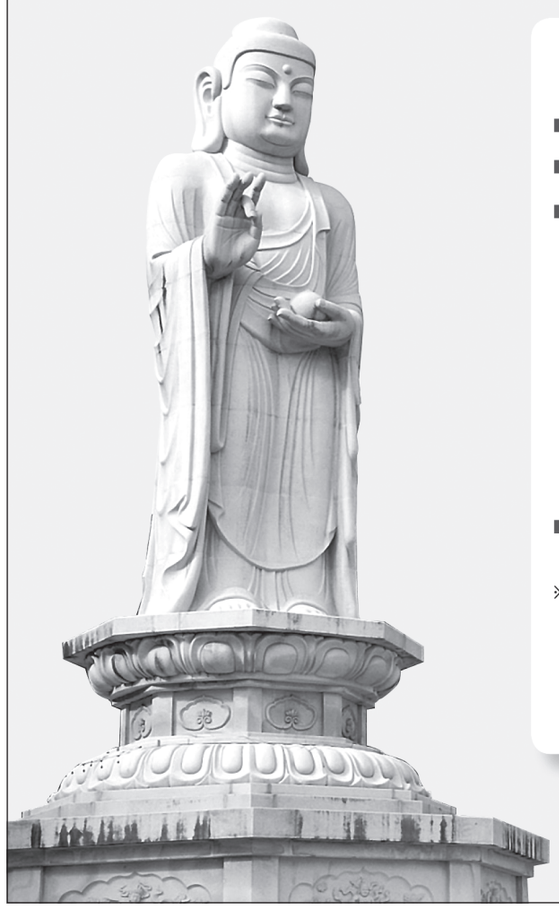
**질문자1(남)** 질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큰스님** 우리가 생활을 그냥 하는 게 그대로 찰나찰나 윤회가 되는 것이고, 윤회라는 것은 이름이지, 그게 이름 가지고 논의할 게 아니라 공했다는 그 사실 그걸로 이름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4년 3월 6일 법형제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아무리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줄지 않는 이 마음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사세요, 아주 당당하게!
걸망 지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어릿떠릿하고 바람 부는 대로 쓸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 2022학년도 팔공총림 동화사 승가대학(원) 학인 모집



## 동화사 승가대학

■ **모집대상** : 사미스님 신입생 00명, 편입생 00명
■ **모집기간** : 불기2566(2022)년 **4**월 **3**일까지
■ **특　　전** : 1) 월 보시금 및 소임비 지급
2) 성운대학교 사회복지과 수학 지원 (학기당 장학금 지급)
3) 해외 성지순례(사집반, 대교반)
4) 모든 신입생 대상 최신형 노트북 지급
5) 전 강의실 에어컨 완비 및 책·걸상 구비
6) 주 2회 병원 외출 허용 (+ 대구 시내 접근성 편리)
7) 주 1회 체육운력 시행
■ **문　　의** : 승가대학 : 053)980-7925
학감 여운스님: 010-7626-5558

※ 타 종단 스님 수강 가능
(동국대, 중앙승가대, 기본선원 스님도 가능)

동화사승가대학장 **종인**

## 율학승가대학원

■ **모집대상** : 전문과정 00명, 연구과정 00명
■ **모집인원** : 개방형 00명, 상주형 00명
■ **자　　격** : 1) 기본교육기관은 졸업하고 비구계를 수지한 자.
2) 불기2566(2022)년도 봄 비구계 수계예정자.
3) 타종단스님도 수강 가능(통학)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4) 기본교육기관 졸업 증명서
5) 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 (율원거주 학인만 해당)
6) 사진(3×4) 3매 7) 연구계획서(연구과정 지원자에 限)
■ **등 록 금** : 1학기당 400,000원(개방형 전문반 학인에 한함)
※ 사중거주 학인은 등록금 면제
■ **모집기간** : 불기2566(2022)년 **3**월 **18**일까지(추후 개별 공지함)
갈마 면접 : 3월 23일 오전10시 비로전
■ **신청방법** : 율학승가대학원생 모집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053)980-7955, 7983 율감 010-5665-5010

팔공총림 동화사 율학승가대학원
율주대학원장 **현진**

## 한문불전승가대학원

■ **모집대상** : 스님 : 비구, 비구니(타종단 스님 수강 가능)
재가자 : 5계를 수지한 신도
■ **학　　제**
1) 학　　제 : 2년 4학기, 주 1회 수업, 년 2회 2박3일 특강
2)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5시~8시
3) 수업장소 : 보현사 내 보광명홀 (대구시 중구 문우관길 65)
4) 수 강 료 : 한 학기당 50만원
■ **수료자 특전** : 동화사 한문불전 승가대학원 졸업시 3급 승가고시 응시에 필요한 교육경력 2년 인정
■ **교과과정**

| | 과 목 | 강 사 | 특 강 |
|---|---|---|---|
| 1학년1학기 | 선 요 | 선지 스님 | 1차 : 미정 |
| | | | 2차 : 미정 |

■ **접수기간 및 장소** : 기간 : 2022년 **1**월 **1**일 ~ **3**월 **25**일
장소 : 한문불전 승가대학원 사무처
문의 : 053)252-3445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 (소정양식) 2) 승적증명서 또는 승려증 사본(스님에 한함) 3) 반명함판 사진 2매
■ **개강일자** : 2022년 3월 7일(월요일)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원장 **선지**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 1(도학동35) **전화** : 053)980-7900 **홈페이지** : www.donghwasa.net